

부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 척도 개발*

- Gottman의 네 기수(騎手) 개념을 중심으로 -

Development of the Dysfunctional Communication Behavior Scale for Married Couples*

- Focusing on Gottman's Four Horsemen of the Apocalypse -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사 권윤아

부산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노인생활환경연구소

교수, 연구원 김득성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 Yoon A Kwon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 Research Institute of Ecology for the Elderly, Pusan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Deuk Sung Kim

◀ 목 차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결과 및 해석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elf-report scale measuring dysfunctional communication behaviors that Korean husbands and wives may use during marital fights. Based on the four concepts of criticism, contempt, defensiveness, and stonewalling proposed by Gottman(1994a), an initial pool of 38 items was developed. Through expert reviews of the 38 items to assess content validity, preliminary 30 items were selected. Using a sample of 89 married couples who were living in Busan, Korea, we conducted item analyses and exploratory factor analyses with the 30 items. These analyses yielded a final 19-item, four-factor scale : criticism(5 items), contempt(5 items), defensiveness(5 items), and stonewalling(4 items). The internal consistency estimates for these subscales were satisfactory. Finally, using another sample of 228 wives, we conducte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o confirm cross validity of the 19-item, four-factor model. The result indicated that this model fitted the data reasonably well. All

Corresponding Author : Yoon A Kwon,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Pusan National University, 30 Jangjeon-dong, Kumjung-ku, Busan, 609-735, Korea Tel: +82-51-510-3342 Fax: +82-51-513-7976 E-mail: e-kya@hanmail.net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standardized factor loadings were significant in this model.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ed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is scale.

주제어(Key Words) : 비난(criticism), 경멸(contempt), 방어(defensiveness), 냉담(stonewalling), 의사소통 행동(communication behaviors)

I. 서론

결혼생활에는 만족스럽고 행복한 시기도 있지만 스트레스가 생기는 고통의 시기도 수반된다.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는 부부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서로에 대한 감정이 나빠지는 시기일 것이다. 부부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서로 욕구나 가치, 목표, 생각이 늘 같을 수 없기 때문에 부부사이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나 행복하고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갈등으로 결혼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부부가 갈등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부부들은 보통 갈등이 일어날 때 갈등의 원인이나 내용, 문제해결에 집중한다. 그러나 결혼문제를 다루는 많은 전문가들은 갈등관리의 중요한 수단으로서 의사소통 과정(process)을 강조한다. 즉 무엇에 대해 논쟁하는가보다 어떻게 논쟁하는가가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을 결정하는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Stanley, Markman, & Whitton, 2002). 이러한 주장은 서구의 많은 관찰연구(Alberts & Driscoll, 1992; Billings, 1979; Gottman, 1993; Gottman & Krokoff, 1989; Gottman, Markman, & Notarius, 1977; Halford, Hahlweg, & Dunne, 1990; Heavey, Layne, & Christensen, 1993; Margolin & Wampold, 1981; Roberts, 2000; Roberts & Krokoff, 1990)에서 실제로 입증되어, 부부가 갈등이 있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 부정적인 의사소통 행동을 많이 사용하거나 긍정적인 의사소통 행동을 적게 사용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낮고 이혼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결혼관계 개선과 이혼 예방을 위해 부부에게 부부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갈등관리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부부개입전문가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부부가 긍정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거해야 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행동을 확인하고 조기에 그만 두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Young & Long, 2004, p. 191). 그런데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취약한 의사소통 행동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거나 의사소통 행동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평가하려고 할 때 간편하

게 사용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척도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 나와 있는 부부간 의사소통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로는 ENRICH(Evaluating & Nurturing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Happiness) 검사지의 부부의사소통 척도(Olson, Fournier, & Druckman, 2002), 의사소통효율성 척도(Marital Communication Inventory)(Bienvenu, 1970), Satir의 의사소통 유형검사척도(김득성, 김정옥, 송정아, 2000), 한국형 결혼만족도 검사의 문제해결 의사소통 불만족 척도(권정혜, 채구만, 1998), 의사소통 척도(송시내, 1999), 부부의사소통 검사(Primary Communication Inventory)(Locke, Sabaght, & Thomes in Navran, 1967) 등이 있다. 그런데 대다수의 척도가 구체적인 의사소통 특성보다 전반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측정하는 척도이거나 특별히 갈등상황에 초점을 맞춘 척도가 아니다. 국내의 갈등대처방식¹⁾ 척도들에도 무조건 양보(박영화, 2004), 부정적 감정·행동 표출(조유리, 2000), 심리적 공격, 신체적 공격(강학중, 유영주, 2003) 등 갈등상황에서 사용하는 의사소통 행동을 측정하는 하위척도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종류가 다양하지 않은 편이다. 또한 최근에 자주 사용되는 부부의사소통유형 질문지(Communication Patterns Questionnaire)(Christensen & Sullaway, 1984)는 부부 이인관계의 상호작용 연쇄과정(sequences)을 측정하는 척도이므로 각 배우자의 의사소통 행동을 파악하기 위한 척도로는 적절하지 못하다.

부부갈등관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척도는 갈등상황에서 일어난 의사소통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경험적 연구에서 결혼만족도나 이혼과 관련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난 구체적인 의사소통 행동을 다양한 종류별로 측정하는 척도일 것이다. 이러한 척도로는 Gottman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척도(Gottman, 1994a, pp. 77-97)와 네 기수 척도(The Four Horsemen Questionnaire)(Gottman, 1999, pp. 388-389)가 있다. 이는 Gottman(1993, 1994b, pp.

1) 연구자들마다 갈등관리방법(이영자, 장영애, 2002), 갈등대처행동(조유리, 2000), 갈등해결유형(장춘미, 2001), 부부싸움 대처행동(강학중, 유영주, 2003)등 상이한 용어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괄적으로 갈등대처방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88-127, 284-298)의 종단적 관찰연구에서 이혼을 높게 예측하는 요인으로 밝혀진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을 사정(assessment)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다. 비난이란 배우자가 잘못된 구체적인 행동이 아니라 성격이나 인간성을 공격하는 것이다. 경멸은 배우자를 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모욕감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며, 방어의 자신이 공격받았다고 느낄 때 공격을 피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시도를 의미한다. 그리고 냉담은 배우자에게 반응하는 것을 단념하고 침묵하는 것이다(Gottman, 1994a, pp. 72-97). Gottman의 연구결과는 갈등상황에서 습관처럼 사용하는 역기능적인 말이나 얼굴표정, 목소리 톤, 몸짓 등이 관계를 파괴하는 매우 중요한 초기요인임을 알려준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 요인은 부부가 갈등을 안전한 방식으로 다루도록 돕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런데 Gottman의 두 척도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다. 첫째, 척도개발자에 의한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가 검증되지 않았다. 둘째, 부부가 갈등상황에서 사용하는 의사소통 행동보다 사고를 측정하는 문항(예,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나에게서는 그다지 책임이 없다', '우리가 싸울 때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²⁾)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응답자가 상대배우자에 대해 응답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가끔 각 배우자의 의사소통 행동에 대한 상대배우자의 지각이 더 정확할 때가 있기 때문에 상대배우자의 지각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라면 더 유용할 것이다. 셋째, 의사소통은 언어적 수준뿐 아니라 비언어적 수준에서도 일어나며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정서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언어만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한다(Noller & Fitzpatrick, 1993, p. 15; Young & Long, 2004, p. 178). 또한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은 언어적 의사소통 행동보다 결혼만족도와 더 강한 관계가 있다(Gottman et al., 1977). 그런데 이 두 척도에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이 거의 없다. 물론 응답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은 질문지로 측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응답자가 인식할 수 있고 의도적으로 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도 있다. 특히 경멸과 냉담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을 통해 잘 전달되기 때문에 갈등 시 일어나는 의사소통 행동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을 측정하는 문항도 포함시켜야 한다. 넷째, 문항의 응답범주가 예/아니오의 이분형이므로 응답의 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다섯째,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은 미국 부부를 관찰하여 밝혀진 것으로 이것을 한국 부

부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ottman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척도 및 네 기수 척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한국 부부에게 적용 가능한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을 측정하는 신뢰할 만하고 타당한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는 부부교육 및 부부상담에 유용하게 활용되어 이혼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 개념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문항을 제작하고 다음의 연구문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첫째, 부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 척도의 문항양호도는 어떠한가?

둘째, 부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 척도의 구성타당도는 어떠한가?

셋째, 부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 척도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넷째, 부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 척도의 교차타당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Gottman 연구진은 왜 어떤 부부는 행복하고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하는데 어떤 부부는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거나 이혼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실험실에서 부부들이 갈등이 있는 문제에 대해 15분간 논의하는 장면을 자세하게 관찰하였다(Gottman, 1994b, p. 90). 그리고 관찰코딩체계를 사용해서 두 배우자의 의사소통 행동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의사소통 행동이란 의사소통 과정에서 사용되는 관찰 가능한 언어적·비언어적 행동으로서 여기에는 말, 표정, 시선, 몸짓, 자세, 준언어(paralanguage) 등이 포함된다. 부부 상호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관찰연구는 이미 1970년대 초부터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Gottman은 관찰연구를 확장하여 단기적인 종단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4년 이내에 이혼하는 부부와 이혼하지 않는 부부를 85%의 정확도로 높게 예측하는 네 가지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을 발견하게 되었다(Gottman, 1999, p. 51).

부부갈등논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들은 이 네 요인 중 하나에 속하게 된다(Young & Long, 2004, p. 192). 그는 이 네 요인이 결혼생활에 들어오는 순서대로 각각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으로 명명하고, 이 네 요인을 이혼이 다가오고 있음을 차례대로 알리는 위험 신호라는 뜻에서 '계시록의 네 기수(four horse men of the Apocalypse)'라고 불렀다(Gottman, 1994a, p. 72). 즉 앞의

2) 김수연과 김득성(2001)이 Gottman(1994a)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척도를 번안한 문항임.

기수는 다음 기수가 등장할 길을 터놓으며 결혼생활에 한 기수씩 등장할 때마다 긴장이 커지면서 이혼하기가 더 쉬워진다고 하였다.

1. Gottman의 네 가지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의 개념

부부들은 누구나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불만을 표현하는 방식이 중요하다. 배우자의 구체적인 행동을 지적하는 불평은 괜찮지만 불평이 비난이 되면 문제가 된다. 비난이란 배우자의 인격, 성격, 능력을 전면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비난의 일반적인 형태로는 '당신은 항상 ~'이나 '당신은 절대 ~'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 여러 가지 불만거리를 한꺼번에 길게 늘어놓는 것, 손가락질하면서 판결을 내리는 말, 배우자를 믿지 못하겠다고 책망하는 것 등이 있다. 비난은 무의식적으로 시작될 수 있고 억압된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너무 자주 비난하거나 상대배우자가 비난에 너무 예민할 때에는 문제가 된다. 비난으로 결혼생활이 부식되면 결혼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경멸의 등장을 예고한다. 경멸은 배우자에게 모욕감을 주고 심리적으로 확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다. 경멸로는 모욕하기, 욕하기, 적대적인 유머, 조롱하기 등이 있으며 코웃음 치기나 윗입술 들어올리기, 눈동자 굴리기 등 얼굴표정으로도 잘 전달된다. 배우자를 경멸로 대하게 되면 상대배우자는 방어하게 된다. 방어의 공격을 피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시도로서 책임부인하기, 변명하기, 배우자의 말을 무시하고 맞받아 불평하기, '당신도 마찬가지'라고 받아치기, 자기 입장만 되풀이해서 말하기, 푸념하기 등이 있으며 거짓미소, 팔짱 끼기 등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으로도 전달된다. 방어를 하는 사람은 자신이 결백하기 때문에 방어가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방어의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방해하고 갈등이 더 커지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손상되면 대화 도중에 냉담이 일어난다. 냉담은 대화를 거부하고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침묵하거나 대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눈 마주침, 고개 끄덕이기, 짧게 호응하는 말 등을 통해 상대방의 말을 잘 따라가며 듣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 그런데 냉담을 사용하는 사람은 이러한 신호를 보내지 않으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숨긴다. 그래서 상대방은 마치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냉담은 긴장을 풀고 갈등을 악화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도 상대방에게 거리감, 잘난 체, 무시 등을 전달하는 강력한 행동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Gottman, 1994a, pp. 72-97; Gottman, 1999, p. 46). 본 연구에서는 Gottman이 제시한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의 개념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2. 네 가지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이 결혼관계에 미치는 영향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이 결혼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이것이 부부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해서 불화를 지속시키기 때문이다(Gottman, 1994a, p. 97). 이 네 요인이 결혼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Gottman은 부부가 이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사건들 즉 결혼만족도 감소, 별거나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 및 별거를 차례대로 경험할 것으로 보고,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이 낮은 결혼만족도, 심각한 별거나 이혼 고려, 실제 별거 및 이혼과 각각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상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부부가 문제논의상황에서 이 네 가지 의사소통 행동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후의 결혼만족도가 낮은 것과 별거나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 및 실제로 3년 혹은 4년 이내에 별거나 이혼을 하는 것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ottman, 1994b, pp. 111-113, 287-298). 또한 이 네 가지 의사소통 행동은 이혼 전에 경험하게 되는 거리감과 고립 과정(distance and isolation cascade)의 다섯 가지 현상인 생리적 범람(flood), 부부사이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느낌,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 한 집에서 남처럼 살아가는 것에 대한 적응 및 외로움과도 각각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Gottman, 1994b, pp. 88-117, 286-289).

Gottman, Coan, Carrere와 Swanson(1998)은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에 기초해서 신혼부부의 문제논의상황에서 나타난 약한 부정적 정서-탄탄, 분노, 슬픔, 오만, 혐오, 두려움, 냉담-와 강한 부정적 정서-호전성, 방어, 경멸-가 6년 이내의 이혼과 결혼만족도를 예측하는지 각각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내의 약한 부정적 정서와 남편과 아내의 강한 부정적 정서가 이혼을 예측하였으나 결혼만족도는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와 동거커플을 대상으로 한 Kim, Capaldi와 Crosby(2007)의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문제논의 중의 약한 부정적 정서와 강한 부정적 정서가 2년 반 후의 관계만족도를 예측하였으나 관계해체는 예측하지 못하였다. Holman과 Jarvis(2003)의 연구에서는 적대형(hostile type), 다혈질형(volatile type), 회피형(avoiding type) 및 건설형(validating type)의 부부 갈등대처유형 중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적대형의 남편과 아내가 결혼만족도와 결혼안정성이 가장 낮았다.

행복한 부부도 갈등이 있을 때 가끔 비난, 방어 및 냉담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비교적 낮은 비율이며 갈등으로 인한 손상에서 빨리 회복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경멸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경멸은 심리적 확대를 가하는 행동이므로

결혼관계를 파괴하는 힘이 가장 강해서 반드시 피해야 하는 행동이다(Gottman, 1999, p. 47).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은 결혼생활에 일정한 순서로 들어 오게 되는데 Gottman(1993)의 연구에 의하면 비난이 경멸을, 경멸이 방어를 그리고 방어가 냉담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 모두를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될 때 이혼으로 향하는 첫 번째 전환단계로 떨어지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부부가 서로 상처받고 방어적인 태도로 배우자의 부정적인 말에만 주목하고 다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현상이 반복된다. 부부가 이 단계에서 애정을 회복하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하면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이 굳어져서 이혼으로 향하는 두 번째 단계인 거리감과 고립 과정으로 떨어지게 되고(Gottman, 1994a, pp. 101-102) 부부가 이 상태까지 오게 되면 서로 애정, 유머, 관심 등 긍정적인 정서를 거의 교환하지 않고 사이가 멀어진 채로 긴장과 슬픔을 억압하면서 지내게 된다(Gottman, 1999, p. 48).

이상에서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은 결혼이 해체로 전환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중요한 초기 위험신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부개입전문가들이 부부교육이나 부부상담을 통해 부부들이 초기에 이 네 가지 위험신호에 민감하도록 가르치고 이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결혼관계악화 및 이혼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1〉 문항제작에 사용된 척도와 문항

척도	문항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척도 (Gottman, 1994a)	나를 괴롭히는 배우자의 구체적인 행동을 비판할 뿐 아니라 배우자의 성격도 분석한다. 배우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게끔 만들려고 한다. 불평을 할 때 '당신은 항상' 혹은 '당신은 절대로' 라는 말을 사용한다. 배우자의 기를 꺾는 말을 한다. 배우자가 불평하면 내 입장을 다시 설명하려고 한다. 싸움이 커지기 전에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싸움이 커지면 바로 자리를 뜨고 싶다. 배우자가 너무 부정적으로 나오면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네 기수 척도 (Gottman, 1999)	가끔 입을 꼭 다물고 침묵한다. 배우자에게 비열하게 대하고 모욕을 줄 수 있다. 배우자의 개선되어야 할 성격적 결함을 지적하려고 한다.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침묵할 때가 많다.
갈등관리전략 척도 (장해순, 2003)	나는 상대방의 성격과 관련된 부분을 비난하였다. 나는 갈등을 상대방의 성격 탓으로 돌렸다. 나는 상대방이 가책감을 느끼도록 만들었다. 나는 상대방을 위협하려고 하였다. 나는 협박을 사용하였다. 나는 유머를 사용하면서 빈정거렸다. 나는 상대방에게 앞으로 행동을 조심하라고 말했다. 나는 왜 전혀 문제가 없는지 설명하였다.
갈등해결방법 척도 (이재강, 2004)	동해져서 말을 하지 않았다. 방을 박차고 나갔다. 이혼이나 별거를 하자고 위협했다.
갈등해결방식 척도 (이경희, 1998)	문제에 부닥치면 입을 다문 채 더 이상 이야기하길 거부했다. 의미도 없이 잔소리를 계속해냈다. 남편에게 모욕을 주었다.
갈등해결유형 척도 (장춘미, 2001)	오랫동안 침묵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야기를 중단시키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어떤 한계에 다다르면, 입을 다물고 더 이상 말하기를 거부한다. 빈정거리거나 비난한다. 정말로 의도하지 않았던 나쁜 말 혹은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한다. 상대방으로부터 물러나서 냉담하게 행동하고 신경을 꺼버린다. 아주 화가 나서 집을 나간다. 우리 관계를 끝내겠다고 협박한다.
부부싸움 대처행동 척도 (강학중, 유영주, 2003)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거나 욕을 했다. 배우자를 괴롭히는 악의에 찬 말을 했다. 배우자의 외모에 대해 비난하거나 빈정거리는 말을 했다. 배우자에게 슬모없는 사람이라고 했다.
심리적 학대 대처양식 척도 (정서영, 1995)	배우자를 자주 위협한다. 이혼이나 별거를 제의한다.

주. 문항제작에 사용된 문항만 발췌함.

Ⅲ. 연구방법

1. 척도의 구성

부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 척도의 개발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헌고찰을 통해 Gottman이 제시한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의 개념 정의와 구체적인 예들을 검토하였다. 그 다음으로 Gottman(1994a, pp. 77-97)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유형척도, Gottman(1999, pp. 388-389)의 네 기수 척도 및 국내의 갈등대처방식 척도들의 문항을 수집,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참고하여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의 개념 정의와 예들을 잘 반영하도록 총 38문항을 제작하였다. 문항제작에 사용된 척도와 문항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문항제작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첫째, 관찰가능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서술문으로 문항을 제작하였다. 그래서 응답자가 자신뿐 아니라 상대배우자의 의사소통 행동에 대해서도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비교적 인식가능한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에 대한 문항도 포함시켰다(예, '굳은 표정으로 침묵한다'). 셋째, 동일한 문항을 배우자에 대한 호칭('남편' 혹은 '아내')만 바꾸어서 남편용과 아내용으로 제작하였다.

넷째,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은 선행연구에서 부부의 문제 논의과정에서 관찰된 행동이므로, 이를 측정하기 위한 상황을 비교적 다의적 의미가 있는 '부부갈등' 보다 상호 언어적인 의견대립을 뜻하는 '부부싸움' 상황으로 한정하였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부부싸움을 할 때 각 문항에 해당하는 행동을 배우자에게 했는지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응답의 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응답범주를 전혀 아니다(1점), 대체로 아니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리커트 형식으로 하였다.

제작된 38문항의 내용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자와 가족학 박사 2인, 박사과정 학생 1인 및 석사과정 학생 2인이 함께 모여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문항 간 의미가 중복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8문항을 추려내고 최종적으로 네 요인, 30문항으로 구성된 예비척도를 완성하였다(<표 2>). 예비척도의 문항 수는 비난 8문항, 경멸 6문항, 방어 10문항, 냉담 6문항이었다. 하위영역의 문항 수가 다른 이유는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 개념을 반영하는 후보 문항들을 모두 분석에 포함시켜 그중에서 가장 좋은 문항을 선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표 2> 예비척도의 구성

요인	문항
비난 (8문항)	1. 남편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따진다. 2. 길게 잔소리 한다. 3. '당신은 항상, 또 문제' 라는 식으로 말한다. 4. '당신은 한번도 ~한 적이 없다' 는 식으로 말한다. 5. 남편의 성격이나 인간성을 비판한다. 6. 남편이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말투로 말한다. 7. 남편이 잘못된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투로 말한다. 8. 남편이 죄책감을 느끼도록 말한다.
경멸 (6문항)	9. 경멸(멸시)하는 표정을 짓는다(예 : 코웃음 치기). 10. 가시 돌린 욕설과 모욕을 주는 말을 한다(예: '정말 정떨어진다', '멍청하다'). 11. 이혼, 별거를 하자고 위협한다. 12. 남편 집안이나 시부모에 대해서 헐담한다. 13. 남편의 기를 꺾거나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14. 남편의 약점을 일부러 공격한다.
방어 (10문항)	15. 결백을 주장하면서 억울해하거나 운다. 16. 변명하거나 거짓말을 한다. 17. 잘못을 해도 미안하다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는다. 18. 남편의 말에 나오는 아무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인다. 19. 남편이 하는 말에 놀라서 펄쩍 뛰면서 전부 부인한다. 20. 내 입장만 반복해서 설명한다. 21. 남편이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22. 남편의 말에 '모두 다 당신 때문' 이라고 하며 나무란다. 23. 남편의 말에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무슨 문제야' 라고 하면서 따지고 든다. 24. '당신이나 잘하라. 당신도 마찬가지로' 라고 하면서 반격한다.
냉담 (6문항)	25. 대화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다(예: TV 음량 높이기, 획 돌아눕기). 26. 굳은 표정으로 침묵한다. 27. 냉정한 태도로 등을 돌리고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28. 마음대로 하라고 말한 후 무관심한 태도로 바꾼다. 29. '됐으니까 그만 말하라' 고 한 후 더 이상 말을 듣지 않는다 30.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다.

주. 문항은 아내용 설문지 형태로 제시함.

2. 연구대상 및 분석절차

2007년 7월부터 10월에 걸쳐 부산시 6개구(금정구, 동래구, 북구, 서구, 연제구,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만 60세 미만의 부부를 가정, 회사, 교회, 성당,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를 통해서 유의표집하였다. 총 420쌍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한 설문지 중 응답이 부실하게 기재되었거나 응답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자료, 지난 1년간 부부싸움이 전혀 없었다고 응답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89쌍의 부부자료와 총 228명의 아내자료만 분석에 사용하였다. 남편의 경우 설문에 응답하지 않고 설문지를 그대로 돌려보내거나 아내가 대신 응답한 경우가 많아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적었기 때문이다.

먼저 89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임시로 구성된 30문항의 예비척도에 대해 문항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여 부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 척도를 최종적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 척도의 교차타당도 검증을 위해 228명의 아내자료를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89쌍의 부부집단과 228명의 아내집단 모두 남편 연령 만 40대(부부집단 49%; 아내집단 48%), 아내 연령 만 30대(57%; 46%)가 가장 많았다. 교육수준은 남편과 아내 모두 대졸(61%, 56%; 55%, 52%)이 가장 많았고 직업은 남편이 관리직·전문기술직(29%; 27%)이, 아내는 무직(54%; 50%)이 가장 많았다. 남편 수입은 201~300만원(39%; 30%)이, 아내 수입은 소득 없음(48%; 44%)이 가장 많았다. 자녀수는 2명(64%; 58%)이 가장 많았고 대부분 초혼이었다(98%; 99%). 결혼기간은 부부집단이 11~15년(44%)이, 아내집단은 16~20년(40%)이 가장 많았다.

두 집단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서 서로 유사한 집단인지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연령과 결혼기간에서만 집단 간 유의한 평균차가 있었다. 남편과 아내의 평균연령은 부부집단이 각각 만 39.2세와 만 37.6세, 아내집단이 각각 만 41.8세와 만 40.0세로 아내집단이 부부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남편 $t = 3.70, p < .001$, 아내 $t = 3.84, p < .001$). 평균결혼기간은 부부집단이 10년 7개월, 아내집단이 13년 6개월로 아내집단이 부부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길었다($t = 4.27, p < .001$). 한편 교육수준(남편 $t = -0.67, p = .502$, 아내 $t = -0.66, p = .511$), 직업(남편 $t = 1.04, p = .303$, 아내 $t = 1.03, p = .165$), 수입(남편 $t = 0.19, p = .852$, 아내 $t = 1.06, p = .290$) 및 자녀수($t = -0.78, p = .434$)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평균차가 없었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	구분	부부		
		N = 89쌍 ^a	N = 228명 ^b	
남편 연령	만 20대	3(3)	6(3)	
	만 30대	41(46)	78(34)	
	만 40대	44(49)	109(48)	
	만 50대	1(1)	34(15)	
아내 연령	만 20대	5(6)	7(3)	
	만 30대	51(57)	105(46)	
	만 40대	33(37)	101(45)	
	만 50대	0(0)	14(6)	
남편 교육 수준	중졸	1(1)	3(1)	
	고졸	21(24)	65(29)	
	대졸	54(61)	124(55)	
	대학원졸	13(15)	33(15)	
아내 교육 수준	초등졸	0(0)	2(1)	
	중졸	0(0)	6(3)	
	고졸	32(36)	79(35)	
	대졸	50(56)	117(52)	
	대학원졸	7(8)	21(9)	
	남편 직업	무직, 주부	1(2)	2(1)
		노무직, 생산가능직	16(18)	28(13)
		기술직, 판매/서비스직	8(9)	17(8)
소규모자영업		16(18)	43(19)	
사무직, 공무원		17(19)	56(25)	
관리직, 전문기술직		26(29)	61(27)	
고위전문직		5(6)	16(7)	
아내 직업	무직, 주부	48(54)	111(50)	
	노무직, 생산가능직	3(3)	11(5)	
	기술직, 판매/서비스직	13(15)	21(10)	
	소규모자영업	5(6)	14(6)	
	사무직, 공무원	9(10)	23(10)	
	관리직, 전문기술직	9(10)	34(15)	
	고위전문직	2(2)	7(3)	
남편 수입	소득없음	1(1)	3(1)	
	100만원 이하	2(2)	6(3)	
	101~200만원	11(12)	33(15)	
	201~300만원	35(39)	68(30)	
	301~400만원	20(23)	57(25)	
아내 수입	401만원 이상	20(23)	58(26)	
	소득없음	43(48)	97(44)	
	100만원 이하	19(21)	44(20)	
	101~200만원	13(15)	32(14)	
	201~300만원	4(5)	31(14)	
자녀수	301~400만원	9(10)	12(5)	
	401만원 이상	1(1)	7(3)	
	0명	0(0)	17(8)	
	1명	22(25)	44(20)	
	2명	57(64)	131(58)	
결혼상태	3명 이상	10(11)	33(15)	
	초혼	87(98)	223(99)	
결혼기간	재혼	2(2)	2(1)	
	1-5년	13(15)	29(13)	
	6-10년	22(25)	44(20)	
	11-15년	39(44)	61(28)	
	16-20년	15(17)	88(40)	

^a 아내의 응답을 토대로 분석함.

^b 무응답으로 인해 전체 사례수가 차이가 있음.

3) 교육수준, 직업, 수입은 수준에 따라 1-5점, 1-7점, 1-6점으로 점수화하여 연속형 변인으로 처리함.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대부분 SAS 9.1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및 평균을 산출하고 t검증을 실시하였다. 문항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개별문항마다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문항의 왜도 및 문항-하위척도간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그리고 X^2 검증을 하고 Cramer's V계수를 구하였다.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공통요인분석의 주축분해법과 사각회전 방식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하위요인별로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Amos 7.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문항양호도

부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임

시로 구성된 30문항 예비척도의 문항양호도를 알아보고자 89쌍(N = 178)의 부부자료를 사용하여 문항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각 문항마다 1 ~ 5점의 응답범주 중 한 범주에 70%이상의 집중응답을 보이는 문항은 없었다. 둘째, 문항의 왜도(Skew)는 -0.21 ~ 1.80까지로 대부분 정적으로 비대칭적인 분포를 보여 문항의 내용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셋째, 각 하위척도마다 개별문항과 하위척도 간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모든 문항이 .40이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15번 문항('결백을 주장하면서 억울해하거나 운다')의 경우, 상관관계수가 .42로 다른 문항에 비해 상관관계수가 많이 낮았지만 방어의 중요한 한 형태라고 판단되어 개념적인 측면에서 분석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하위척도마다 하위척도의 문항중점이 상위 25%와 하위 25%인 집단을 선정한 다음에 각 문항에 대한 응답빈도가 두 집단에서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X^2 검증을 실시하고 Cramer's V계수를 산출하였다. 30문항 모두 X^2 값이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으며 Cramer's V계수도 .54 ~ 1.00으로 변별도 면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문항

<표 4> 문항분석 결과

N = 178

하위 요인	문항 번호	M	SD	Skew	문항 - 하위척도 간 상관	X^2	Cramer's V
비난	1	2.86	0.99	-0.21	.68	56.48***	.73
	2	2.38	0.86	0.26	.73	74.17***	.84
	3	2.58	1.01	0.00	.78	80.93***	.88
	4	2.51	1.00	0.10	.75	66.13***	.79
	5	2.16	1.00	0.58	.79	71.77***	.83
	6	2.11	1.02	0.65	.80	82.75***	.89
	7	2.73	1.09	-0.11	.80	77.94***	.86
	8	2.26	1.04	0.40	.79	73.06***	.83
경멸	9	1.84	0.88	0.86	.71	74.15***	.88
	10	1.96	1.05	0.92	.79	85.19***	.94
	11	1.72	0.89	1.36	.68	64.44***	.82
	12	1.78	0.92	1.13	.76	70.75***	.86
	13	2.08	0.98	0.58	.82	75.39***	.89
	14	1.84	0.90	0.90	.83	74.12***	.88
방어	15	1.47	0.80	1.80	.42	28.52***	.54
	16	1.52	0.75	1.37	.61	39.62***	.64
	17	2.00	1.03	0.80	.63	65.42***	.82
	18	1.82	0.91	0.92	.75	80.29***	.91
	19	1.63	0.76	0.96	.75	86.65***	.94
	20	2.06	1.02	0.63	.79	72.47***	.86
	21	1.96	0.90	0.82	.79	82.98***	.92
	22	1.75	0.87	0.99	.82	98.00***	1.00
	23	2.19	0.96	0.28	.74	70.65***	.85
	24	2.14	1.02	0.45	.81	81.50***	.91
냉담	25	1.96	1.05	0.81	.83	83.09***	.94
	26	2.52	1.10	0.06	.82	73.69***	.88
	27	2.38	1.17	0.45	.88	86.11***	.95
	28	2.37	1.13	0.40	.86	95.00***	1.00
	29	2.38	1.05	0.26	.83	72.31***	.87
	30	2.10	0.99	0.62	.77	70.90***	.86

***p < .001.

〈표 5〉 부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 척도의 문항 및 구조계수행렬

N = 178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최종공통분 추정치
요인1, 경멸(5문항)					
14. 남편의 약점을 일부러 공격한다	.82	.25	.52	.46	.68
11. 이혼, 별거를 하자고 위협한다	.63	.28	.24	.17	.46
13. 남편의 기를 꺾거나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71	.24	.32	.46	.60
10. 가시 돌진 욕설과 모욕을 주는 말을 한다(예: '정말 정떨어 진다', '멍청하다')	.77	.31	.46	.47	.53
9. 경멸(멸시)하는 표정을 짓는다(예 : 코웃음 치기)	.66	.38	.42	.45	.47
요인2, 냉담(4문항)					
29. '됐으니까 그만 말하라'고 한 후 더 이상 말을 듣지 않는다	.23	.81	.16	.46	.67
25. 대화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다(예: TV 음량 높이기, 획 돌아눕기)	.39	.80	.23	.49	.65
26. 굳은 표정으로 침묵한다	.25	.72	.20	.40	.52
30.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다	.45	.77	.20	.42	.62
요인3, 비난(5문항)					
4. '당신은 한번도~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말한다	.38	.20	.78	.36	.62
3. '당신은 항상, 또 문제'라는 식으로 말한다	.39	.14	.80	.45	.64
5. 남편의 성격이나 인간성을 비판한다	.56	.26	.74	.46	.59
7. 남편이 잘못된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투로 말한다	.45	.24	.69	.47	.50
2. 길게 잔소리 한다	.41	.03	.66	.45	.49
요인4, 방어(5문항)					
20. 내 입장만 반복해서 설명한다	.38	.42	.46	.84	.72
19. 남편이 하는 말에 놀라서 필적 뛰면서 전부 부인한다	.46	.47	.31	.73	.56
23. 남편의 말에 '그럴 수도 있지, 그게 무슨 문제가'라고 하면서 따지고 든다	.38	.44	.36	.67	.46
22. 남편의 말에 '모두 다 당신 때문'이라고 하며 나무란다	.59	.40	.56	.77	.65
16. 변명하거나 거짓말을 한다	.39	.49	.25	.61	.42
고유치	6.89	2.01	1.15	0.78	
최종공통분추정치의 총합		10.84			
독자분산(%) ^a	15%	16%	14%	12%	
공유분산(%) ^b	31%	21%	27%	37%	
요인상관행렬					
요인1	1.00				
요인2	.39	1.00			
요인3	.53	.21	1.00		
요인4	.54	.53	.53	1.00	

주. 문항은 아내용 설문지 형태로 제시함.

^a 각 요인이 독특하게 설명하는 분산.

^b 다른 요인과 공동으로 설명하는 분산.

과 하위척도 간 상관계수, X²값 및 Cramer's V계수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2. 구성타당도

본 연구의 부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 척도는 Gottman의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의 네 개념을 바탕으로 구성한 것이므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임시로 구성된 30문항이 이 네 요인으로 묶이는지 알아보았다. 30문항의 측정결과에는 공통분산 뿐 아니라 문항특유의 분산, 측정오차 등의 고유분산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요인분석 방법으로 공통요인분석⁴⁾을 사용하였으며 축소상관행렬 분해 방법으로는 단일주축분해법(principal axis factoring)을 사용하였다. 공통분(communality)추정치로는 다중상관관계공(SMC)을 사용하였다.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 간에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요인회전방식으로는 요인간

상관관계를 고려하는 사각회전(Orthoblique)을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형태계수(factor pattern loading)행렬에서 해당요인과의 요인부하량이 .40미만이거나 타요인과의 요인부하량이 .30이상인 문항들, 최종공통분추정치가 .30이하인 문항들을 제거하면서 요인구조가 명확해 질 때까지 요인 분석을 여러 번 반복하였다. 이 과정에서 비난 개념으로 제작한 5번 문항('남편의 성격이나 인간성을 비판한다')이 경멸을 나타내는 요인에 높게 부하되기도 하였다. 척도 요인구조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 문항을 제거하는 것이 좋으나 이 문항은 비난 개념을 대표하는 중요한 문항이기 때문에 제

4) "주성분분석은 공통요인분석에서 '고유요인=0'인 경우에 해당 하는 특수한 예이다. 사회과학에서는 '고유요인=0'의 경우를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주성분분석보다는 공통요인분석이 이론적으로 더 합당하다." (이순목, 1995, p.32)

거하지 않았다.

반복적인 요인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11문항이 제거되고 19문항이 추출되었다. 스크리도표와 누적분산비율과 해석 가능성을 차례대로 검토한 결과, 네 요인구조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⁵⁾. 기초요인구조에서 네 요인의 고유치 값은 각각 6.89, 2.01, 1.15, 0.78이었으며, 네 요인은 각각 전체공통분산의 65%, 19%, 11%, 7%를 설명하였다. 누적분산비율이 100%를 약간 넘어서는 것은 공통요인분석에서는 거의 모든 공통분산을 설명하는 수준에서 요인수를 정하기 때문이다. 사각회전 후 최종요인구조에서 각 요인 별로 문항내용을 검토한 결과, 요인1은 '경멸', 요인2는 '냉담', 요인3은 '비난' 그리고 요인4는 '방어'를 나타내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요인분석 과정에서 경멸 요인에 부하되기도 한 5번 문항도 비난 요인에 제대로 부하되었다. 최종적인 19문항과 이에 대한 구조계수(factor structure loading)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에서 각 요인의 독자분산과 공유분산을 살펴보면 네 요인 모두 독자분산보다 공유분산이 더 컸으며, 독자분산이 가장 높은 요인은 냉담(16%)이었고 그 다음으로 경멸(15%), 비난(14%), 방어(12%) 순이었다. 독자분산과 공유분산의 합을 고려하면 방어가 49%로 가장 많은 분산을 설명하였고 그 다음으로 경멸 46%, 비난 41%, 냉담 37% 순이었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비난, 경멸, 방어가 각각 5문항, 냉담이 4문항으로 구성된 네 요인, 19문항의 부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 척도를 선정하였다. 각 하위요인의 문항번호는 '비난'이 2, 3, 4, 5, 7번, '경멸'이 9, 10, 11, 13, 14번, '방어'가 16, 19, 20, 22, 23번, 그리고 '냉담'이 25, 26, 29, 30번이었다.

3. 신뢰도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한 네 요인, 19문항의 부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 척도에 대한 신뢰도검증을 위해 내적일치도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결과는 <표 6>에 있다. α계수는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이 각각 .85, .84, .85, .86으로 만족스러운 수준이었다.

4. 교차타당도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부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 척도의 문항 및 요인구조가 다른 표본 집단에도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아내 228명의 자료를 사

<표 6> 부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 척도의 신뢰도

N = 178				
	비난 (5문항)	경멸 (5문항)	방어 (5문항)	냉담 (4문항)
Cronbach's α	.85	.84	.85	.86

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선정된 네 요인, 19문항을 사용하여 각 문항이 해당요인에만 부하되도록 하였고 요인 간에 상관이 존재하며 잔차 간에는 상관이 없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모수추정법으로는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 검증결과는 <표 7>과 같다. X²은 표본크기에 민감하여 표본크기가 클수록 모형이 쉽게 기각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적합도 검증지수로 표본크기에 덜 민감한 적합도 지수인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및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Hu와 Bentler(1999)가 제안한 엄격한 기준에 따르면 좋은 적합도를 가진 모형이 되려면 TLI와 CFI가 .95보다 커야 한다. 그리고 Browne과 Cudeck(1993, p. 144)에 따르면 RMSEA가 .05미만이어야 한다. RMSEA가 .05이상 ~ .08미만이면 괜찮은 적합도를, .10보다 크면 나쁜 적합도를 가진 모형이다. <표 7>을 살펴보면, TLI와 CFI가 각각 .918, .930으로 .95에 근사하였고 RMSEA가 .07(90%CI = .059-.080)로 .08보다 적게 나타나 괜찮은 적합도를 가진 모형이라고 할 수 있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의 표준화회귀계수가 비난 .72 ~ .78, 경멸 .71 ~ .91, 방어 .61 ~ .79 그리고 냉담 .52 ~ .84로 비교적 안정적인 값을 보였으며 모두 p < .001수준에서 유의하였다. 따라서 모든 문항이 각 문항이 속한 하위요인을 측정하기에 적합한 변인으로 나타나 본 척도의 교차타당도가 지지되었다. 한편 하위요인 간 상관계수가 .41(비난과 냉담) ~ .86(비난과 경멸)으로 높게 나타났다⁶⁾. 비난이 경멸을, 경멸이 방어를 그리고 방어가 냉담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Gottman, 1993)에 비추어 볼 때 네 요인 간 높은 상관관계는 가능한 결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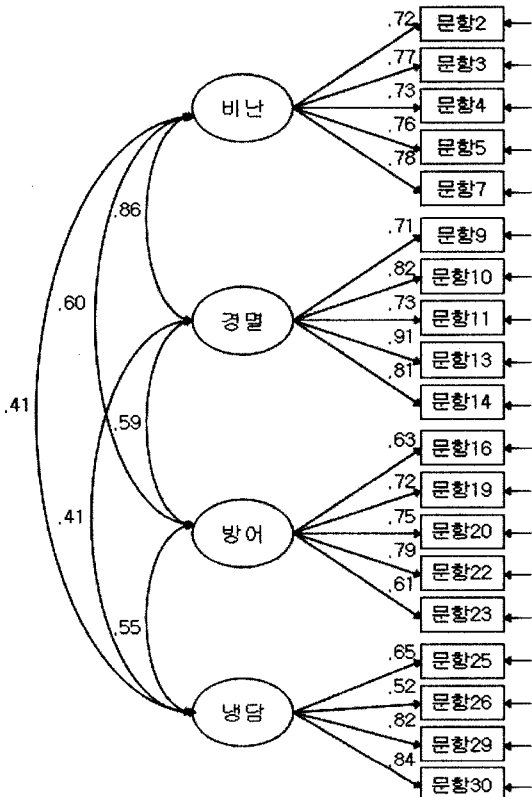
<표 7> 부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 척도의 모형 적합도 지수 N = 228

X ² (df)	TLI	CFI	RMSEA(90%CI)
306.281(146)***	.918	.930	.070 (.059~.080)

***p < .001.

5) 본 연구자는 요인분석에서 적절한 요인 수를 결정할 때 Kaiser가 제시한 고유치가 1보다 커야 한다는 기준을 참고로만 하였다. 이 기준은 원상관행렬을 분해하여 요인을 추출하는 주성분분석에 적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본 연구처럼 축소상관행렬을 분해하여 얻은 고유치에 적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Fabrigar, Wegner, MacCallum, & Strahan, 1999).

6) 내적일치도 Cronbach's α는 비난 .86, 경멸 .89, 방어 .82, 냉담 .80으로 양호하였다.



(그림 1) 부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Gottman의 중단적 관찰연구에서 이혼의 초기 위험요인으로 입증된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을 측정하는 부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 척도를 한국 부부를 대상으로 개발하고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 결과, 네 요인, 19문항으로 구성된 부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 척도가 개발되었다. 그리고 이 척도는 한국 부부의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을 측정하는 신뢰할 만하고 타당한 척도임이 지지되었다. 이는 Gottman이 제안한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의 네 요인구조가 한국 부부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비척도의 문항분석에서 15번 문항(‘결백을 주장하면서 억울해하거나 운다’)이 다른 문항에 비해 방어 척도와와의 상관관계수가 많이 낮았던 이유는 문항내용에 남녀 성차를 예민하게 반영하는 단어인 ‘운다’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 문항에 대해 남편과 아내의 평균을 각각 구한 결과, 남편의 평균(SD)은 1.25(0.61), 아내의 평균(SD)은 1.69(0.91)로 부부갈등상황에서 아내에 비해 남편이 억울해하거나 우는 일이 훨씬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역할

사회화로 인한 결과로 보여지며 남편의 이와 같은 특성이 이 문항과 방어 척도 간의 상관을 낮춘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5번 문항(‘남편의 성격이나 인간성을 비판한다’)이 탐색적 요인분석의 최종 단계에서 비난을 나타내는 요인에 속하였으나 다른 문항을 제거하면서 요인분석을 반복하는 과정에서는 경멸을 나타내는 요인에 높게 부하되기도 하였다. 이는 한국 부부에게 이 문항이 경멸만큼 부정적인 행동으로 지각될 가능성이 큼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경험적 연구에서 결혼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을 측정하는 척도를 한국 부부를 대상으로 개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척도는 관찰가능한 구체적인 행동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자가 자신뿐 아니라 배우자의 의사소통 행동에 대해서도 응답할 수 있다. 그리고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을 묻는 문항도 포함되어 있어서 갈등 시 일어나는 의사소통 행동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또한 문항의 응답범주가 5점 리커트 형식으로 되어 있으므로 응답의 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문항 수가 총 19문항으로 응답과 채점에 걸리는 시간이 적어 사용하기 간편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척도개발을 위해 수집된 표본 수가 적고 아내만 대상으로 하여 척도의 교차타당도 검증을 실시한 점이 가장 큰 제한점이다. 앞으로 더 큰 표본과 남편을 대상으로 본 척도의 타당화를 위한 연구가 더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척도는 부산에 거주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개발된 것이므로 이 척도가 다른 지역 거주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척도의 요인구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경멸 요인에 높게 부하되기도 하였던 5번 문항이 비난과 경멸 중 어느 요인에 속하는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척도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므로 사회적 바람직성과 회상의 문제가 있다. 갈등상황에서 사용하는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을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자기보고식 척도의 한계점을 관찰 척도로 보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부부는 갈등이 있는 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뿐 아니라 기능적 의사소통 행동도 사용한다. 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은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시키고 결혼만족도의 유지와 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기술훈련의 중심목표가 된다. 따라서 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을 구체적인 하위요인별로 측정하는 척도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부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 척도는 부부교육 및 부부상담 현장에서 비난, 경멸, 방어 및 냉담

의 사용정도를 점검하고 이를 기초로 변화가 필요한 취약한 의사소통 영역을 부부에게 인식시켜 의사소통 행동의 변화를 촉진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의사소통훈련이나 상담의 효과를 평가하는 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부를 위한 의사소통훈련 프로그램 및 부부상담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현재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갈등 시 부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의 효과를 파악하는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강학중, 유영주(2003). 한국 도시부부의 부부싸움 및 부부싸움 대처행동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2), 61-84.

권정혜, 채규만(1998).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학술논문집*, 35-51.

김득성, 김정옥, 송정아(2000). 부부의사소통유형과 부부폭력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1-16.

김수연, 김득성(2001). 부부폭력과 결혼불안정성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1-10.

박영화(2004). 부부의 자존감과 의사소통 및 갈등대처 행동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송시내(1999). 결혼생활 만족과 부부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경희(1998). 부인이 지각한 갈등과 친밀감에 따른 부부관계 유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순목(1995). *요인분석 I*. 서울: 학지사.

이영자, 장영애(2002). 결혼초기 주부가 지각한 부부갈등 정도와 갈등관리 방법 및 갈등결과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7(1), 79-93.

이재강(2004).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부갈등, 갈등해결방법, 결혼생활의 질 및 양육태도와 유아의 문제행동.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장준미(2001).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 부부의 지지 및 갈등해결행동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장해순(2003). 갈등관리전략에 대한 상호인식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상호관계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정서영(1995). 부부간의 심리적·신체적 학대, 대처양식과 개인의 적응감.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조유리(2000).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Alberts, J. K., & Driscoll, G.(1992). Containment versus escalation : The trajectory of couples' conversational complaints. *Western Journal of Speech Communication*, 56, 394-412.

Biennvenu, M.(1970). Measurement of marital communication. *Family Coordination*, 19(1), 26-31.

Billings, A.(1979). Conflict resolution in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married cou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2), 368-376.

Browne, M. W., & Cudeck, R.(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Bollen, K. A. & Long, J. S.(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136-162). Newbury Park, CA: Sage.

Christensen, A., & Sullaway, M.(1984). *Communication Patterns Questionnaire*. Unpublished questionnaire, University of California, LA.

Fabrigar, L. R., Wegner, D. T., MacCallum, R. C., & Strahan, E.J.(1999). Evaluating the use of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psychological research. *Psychological Methods*, 4, 272-299.

Gottman, J. M.(1993). A theory of marital dissolution and stability.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7(1), 57-75.

Gottman, J. M.(1994a). *Why marriages succeed or fail*. NY: Simon & Schuster.

Gottman, J. M.(1994b). *What predicts divorce? : The relationship between marital processes and marital outcome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Gottman, J. M.(1999). *The marriage clinic : A scientifically-based marital therapy*. NY: W.W. Norton.

Gottman, J. M., Coan, J. A., Carrere, S., & Swanson, C.(1998). Predicting marital happiness and stability from newlywed interac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1), 5-22.

Gottman, J. M., & Krokoff, L. J.(1989). Marital interaction and satisfaction: A longitudinal 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1), 47-52.

Gottman, J. M., Markman, H. J., & Notarius, C. I.(1977). The topography of marital conflict: A sequential analysis of verbal and nonverbal behavior.

-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461-477.
- Halford, W. K., Hahlweg, K., & Dunne, M.(1990). The cross-cultural consistency of marital communication associated with marital di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487-500.
- Heavey, C. L., Layne, C., & Christensen, A.(1993). Gender and conflict structure in marital interaction: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1), 16-27.
- Holman, T. B., & Jarvis, M. O.(2003). Hostile, volatile, avoiding, and validating couple-conflict types: An investigation of Gottman's couple conflict types. *Personal Relationships*, 10, 267-282.
- Hu L., & Bentler, P. M.(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5.
- Kim, H. K., Capaldi, D. M., & Crosby, L.(2007). Generalizability of Gottman and colleagues' affective process models of couples' relationship outcom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1), 55-72.
- Margolin, G., & Wampold, B. E.(1981). Sequential analysis of conflict and accord in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marital partn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9, 554-567.
- Navran, L.(1967). Communication and adjustment in marriage. *Family Process*, 6, 173-184.
- Noller, P., & Fitzpatrick, M.(1993). *Communication in family relationships*. Englewood Cliff, NJ: Prentice Hall.
- Olson, D. H., Fournier, D. G., & Druckman, J. M.(2002). **ENRICH 질문지 -PREPARE/ENRICH 프로그램 version 2000-**. ENRICH KOREA(역). (1996 원저발간).
- Roberts, L. J.(2000). Fire and ice in marital communication: Hostile and distancing behaviors as predictors of marital di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3), 693-707.
- Roberts, L. J., & Krokoff, L. J.(1990). A time-series analysis of withdrawal, hostility, and displeasure in satisfied and unsatisfied marriag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1), 95-105.
- Stanley, S. M., Markman, H. J., & Whitton, S. W.(2002). Communication, conflict and commitment: Insights on the foundations of relationship success from a national survey. *Family process*, 41(4), 659-676.
- Young, M. E., & Long, L. L.(2004). **부부상담과 치료. 이정연(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1998년 원저발간).

접 수 일 : 2008년 4월 29일

1차 심사시작일 : 2008년 5월 7일

1차 심사완료일 : 2008년 5월 22일

게 재 확 정 일 : 2008년 6월 10일